

조사보고서

2020-3

2020년 3/4분기

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20. 7

1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

- ◆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정부 및 시·도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2. 조사대상 기간,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◆ 2020년 2/4분기(4, 5, 6월) : 실적기간
- ◆ 2020년 3/4분기(7, 8, 9월) : 전망기간
- ◆ 조사기간 : 2020. 6. 1. ~ 2020. 6. 12. (휴일제외 10일)
- ◆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3. 조사대상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
- ◆ 응답개수 : 69개 (설문지 회수율 : 37.0%)

4. 조사내용

- ◆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◆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5. 집계·분석

- ◆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◆ 전반적인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\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\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$0 \leq \text{BSI} \leq 200$)

- ◆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II. 2020년 3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1. 종합전망

가. 개황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69개, 회수율 : 37.0%)으로 2020년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'58.0'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석유화학 연관업종(39개)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(BSI)는 51.3이다.

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【종합 (N = 69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0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0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55.1	58.0
	매출액	59.4	59.4
	영업이익	59.4	56.5
	설비투자	73.9	73.9
	자금조달여건	62.3	63.8

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39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0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0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56.4	51.3
	매출액	56.4	56.4
	영업이익	61.5	53.8
	설비투자	82.1	79.5
	자금조달여건	59.0	59.0

【일반업종(N=30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0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0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53.3	66.7
	매출액	63.3	63.3
	영업이익	56.7	60.0
	설비투자	63.3	66.7
	자금조달여건	66.7	70.0

2. 설문 결과 분석

- ◆ 2020년 3/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(BSI, n=69)는 '58.0'로 조사되었다. 응답 개수 : 69개 (설문지 회수율 : 37.0%)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“부정적”인 결과다.
- ◆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, 석유화학 연관업종(n=39)은 51.3이고, 일반 업종(n=30)은 66.7로 나타났다.
- ◆ 전(2/4분기)분기 실적 대비하여 3/4분기의 경제 전망치는 근소하게 상승(55.1 ⇨ 58.0)하였으나, 여전히 전망지수 기준값(100)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이다.
- ◆ 그럼에도 불구하고, 석유화학 연관업종이 3/4분기 전망을 실적(2/4분기)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일반업종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응답(체감경기)한 것이 다소 대조적이다.
 - 석유화학 연관업종 : 56.4(2/4분기 실적) ⇨ 51.3(3/4분기 전망)
 - 일반업종 : 53.3(2/4분기 실적) ⇨ 66.7(3/4분기 전망)
- ◆ 이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이 제고 되고 있는 소식이 보도되고, 정부주도의 경기부양 추가 지원책이 나오면서, 최근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책이 효과를 경험한 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.
- ◆ 지난 1년간의 경기체감 추이를 분석(n=69)해 보면, 89.4(2019년 3/4분기) ⇨ 70.6(2019년 4/4분기) ⇨ 94.1(2020년 1/4분기) ⇨ 73.2(2020년 2/4분기)⇨ 58.0(2020년 3/4분기)를 보였다.
- ◆ 코로나 정국 이전의 경우, 연초의 주문량 증가, 소비 증가세, 신증설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으나, 2/4분기 전망지수부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과 소

비 경색 등으로 크게 기대심리는 위축(94.1 ⇨ 58.0, 36.1 하락) 되었다.

- ◆ 석유화학 연관업종(n=39)만을 분석한 기업경기 전망추이도 82.9(2019년 3/4분기) ⇨ 71.8 (2019년 4/4분기) ⇨ 82.1(2020년 1/4분기) ⇨ 77.5(2020년 2/4분기) ⇨ 51.3(2020년 3/4분기)추이를 보였다.
- ◆ 석유화학업종은 그동안 일반 업종에 비해 체감도 하락폭이 낮았으나, 마이너스를 기록한 정제마진과 더딘 회복세,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기대심리가 일반 업종에 비해 하락폭이 컸으며,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로 수출주도로 편제되어있는 역내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.

【코로나19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세부 영향 조사】

- ◆ 「코로나19와 관련, 귀사의 1분기 대비 2분기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다소악화(40.6%)” > “비슷(39.1%)” > “매우악화(14.5%)” > “다소 개선(4.3%)” > “매우개선(1.4%)” 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각 부문별로 1분기와 비교하여 악화 혹은 개선 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.」라는 질문에 각 부문별 응답은 다음과 같다.
 - 매출(내수·수출) : 악화(46.3%) > 비슷(41.8%) > 개선(11.9%)
 - 자금조달 : 비슷(58.2%) > 악화(37.3%) > 개선(4.5%)
 - 부품자재조달 : 비슷(70.1%) > 악화(28.4%) > 개선(1.5%)
 - 사업장·공장가동 : 비슷(65.7%) > 악화(31.3%) > 개선(3.0%)
- ◆ 「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상반기 대비 몇 퍼센트 등락할 것으로 보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전체기업 평균 9.1%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. 세부적으로는 석유화학기업은 평균 8.9%, 일반업종은 평균 9.5%이다.

- ◆ 「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확대, 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?」의 질문에 “금융·세제지원”과 “내수소비 활성화(각29.2%)” > “고용유지·안정지원(20.0%)” > “투자활성화(규제개선 등)(15.4%)” > “수출·해외마케팅 지원(6.2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(포스트 코로나)에 대한 대응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대응책 마련중(45.6%)” > “피해최소화에 집중하느라 대응여력 없음(44.1%)” > “대응책 마련해 추진중(10.3%)” 순이었다.
- ◆ 대응책 마련 중이거나 이미 마련했을 경우 내용으로는 “디지털 공정, 비대면 온라인 회의, 재책근무제 도입 등 생산·근무환경 변화”가 가장 많았고, 이후 “R&D 활동 강화 등 핵심기술 역량개발에 주력”, “글로벌벨류체인 변화에 따른 부품자재 조달 및 수출지역 다각화 검토”, “신산업·융복합 산업으로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” 순이었다.
- ◆ 「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.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투자·소비 활성화 법안 마련(38.1%)” > “추경 등 코로나19 피해대응조치(29.1%)” > “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(14.9%)” > “기업 부담입법 지양(공정거래법 등)(14.2%)” > “서비스·신산업 육성 법안(3.0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